

## “뒤죽박죽 곤충나라”

너구리 구리는 동물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개구쟁이 친구입니다. 오늘도 구리 때문에 다른 동물 친구들이 다쳤어요. 선생님은 구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구리는 그때만 “에~”하고 돌아서면 또 장난을 칩니다.

어느 날, 친구 래비에게 장난을 치고 잠깐 낮잠에 든 구리가 눈을 떠보니, 뒤죽박죽 곤충나라였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곤충들이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는 나라예요. 그 곳에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오는 방법은 친구들을 다치지 않게 도와줘서 별을 받아야 한다는데...

과연 구리는 곤충 친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물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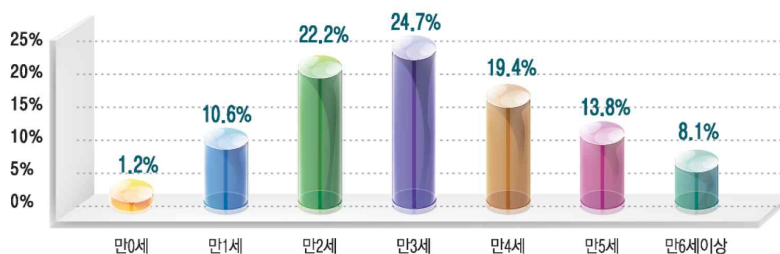


###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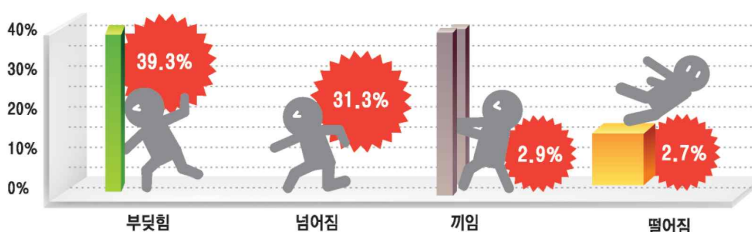
아이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어린이집. 하지만 성장과정 중인 아이들의 발달특성상 다양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합니다. 놀이하다 부딪히고, 뛰어가다 넘어지고, 끼이고 떨어지고 테이고... 생활안전 인형극 ‘뒤죽박죽 곤충나라’는 실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에피소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인공 ‘구리’를 통해 주변 친구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일이 보람된 일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도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약속을 지키도록 어린이집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 알아두세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현황 (2010 안전공제회 사고접수 현황)



만 2~3세 아동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인 47%를 차지합니다



사고유형별로는 부딪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전인형극 선생님

찾아가는 안전인형극 '뒤죽박죽 곤충나라'에서 동물인형 연기를 해주시는 분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인형극 선생님입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 출신들로 구성된 인형극 선생님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위해 직접 무대 연출 및 인형 연기를 배웠으며, 부단한 연습 후에 각 어린이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형극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주세요!



## 주요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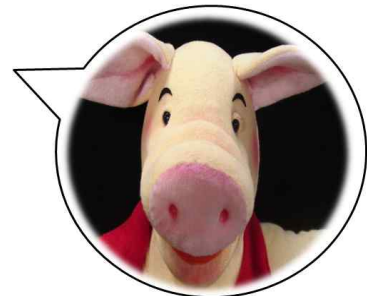


### 안녕? 나는 구리야! (너구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심술꾸러기 말썽꾸러기 하지만, 뒤죽박죽 곤충나라를 다녀온 후 친구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지킴이가 된다.

### 안녕? 나는 피기야! (돼지)

뒤죽박죽 곤충나라에서 만난 친구. 구리처럼 말썽꾸러기였지만 곤충나라를 다녀온 후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가 된다. 후에 구리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새로 온 친구로 만나게 된다.



### 안녕? 나는 래비야! (토끼)

구리와 같은 반 친구. 구리가 종종 짓궂은 장난을 치지만 화내지 않는 마음 착한 친구이다.

### 안녕? 나는 선생님이야! (고양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며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어린이집 선생님. 개구쟁이 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